

# 차로 이용하는 식물의 다양화 연구

-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의 문화원형적 의미를 중심으로-

민 태 영 \*

## 【 국 문 요 약 】

인간이 마음 다스리는데 있어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차의 음용을 들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차를 마시면서 적어도 내면의 갈등 요소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고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약리적 효능을 내세운 많은 대용 차들이 선보이고 있으나 차 인구의 저변 확대로 이어진다고나 새로운 차 문화를 이끌어가기에는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이에 논자는 역사성을 가미한 차식물의 탐구를 통해 단순한 음용차일 뿐 아니라 식물로 체화된 인문학 내지 차문화학의 미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 첫 과정으로서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 역사와 철학 등을 망라한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 가운데 기존의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효능을 대체할 수 있는 몇 가지 식물들을 탐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한민족의 문화원형(文化原形)으로써 차 식물을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차 식물, 차 식물의 다양화, 문화원형, 차문화 콘텐츠

\*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외래교수, tymin62@naver.com

## 목 차

- I. 서 론
- II. 『삼국유사』의 구조와 의미
- III.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
- IV. 차 식물 다양화의 의미
- V. 결 론

## I. 서 론

차의 전래 이후 차는 고대는 물론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기호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라 시대 유입된 차는 융성기인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 왕실의 차 전담 기구가 설립되고 각종 의례와 국가적 불교 행사에 사용되었다. 차 문화의 근간이었던 불교가 쇠퇴한 조선 시대에도 차는 문인들이 선호하는 생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차를 마시는 공간은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명상과 수행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의 요소였다. 그 역할과 기능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심신 안정과 소통의 매개체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도 그 약리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몸과 마음을 비우고 치유하는’ 현대·현대인의 관심 키워드에 부합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차는 일련의 음용 과정과 다양한 제다 기법 등을 통해 하나의 문화 내지 산업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에서 얻어지는 차 식물 단일 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대용 차 식물의 연구와 개발, 음용하는 기호 식품 이상의 가치 부여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고 역사성이 가미된 대용 차 식물의 존재를 밝히고 대용 차 식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차 문화는 물론 차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외연을 더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삼국유사』는 충렬왕 7년(1281)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5권 2책의 사서이며 신라와 고구려, 백제 세 국가는 물론 고조선과 북부여, 위만조선, 마한, 낙랑국, 말갈과 발해, 가야, 통일신라 등 한국사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역사서이다. 특히 종교와 사회, 문화, 생활상은 물론 고대 한국인의 사상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수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삼국유사』에 수록된 총 56종의 식물을 제시하고 이 가운데 차의 본연의 기능을 갖추고 음용할 수 있는 대용 차 식물에 대해 밝힐 것이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의 식물은 의식주의 중요 요소로서 생활의 주요 배경이자 수행 공간이었다는 점, 수목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신화 속 주체자의 강림지,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 인간의 과오를 경계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이 단순한 생물체가 아니라 한국인의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점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론에서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대용 차 식물 또한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들의 역할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한국사의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 역사서에 나타난 식물이 문화원형의 하나라는 인식은 곧 차 문화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 II. 『삼국유사』의 구조와 의미

### 1. 『삼국유사』의 구조

『삼국유사』는 충렬왕 7년(1281)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5권 2책의 사서이다. 『삼국유사』는 「왕력(王歷)」·「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 9편목(篇目)이 144 조목(條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력」은 삼국·가락국·후고구려·후백제 등의 간략한 연표이며, 「기이」 편은 고조선으로부터 후삼국까지의 단편적인 역사를 57조목으로 서술하였고 1·2권에 계속되며 「기이」 편 의 서두에는 이 편목을 설정하는 연유를 밝힌 서(敍)가 있다.

불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내용은 「흥법」 편에 삼국의 불교 수용과 그 융성에 관한 6조목, 「탑상」 편에는 탑과 불상에 관한 사실 31조목, 「의해」 편에는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14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신주」 편에는 신라의 신이한 밀교 승려들에 대한 3조목, 「감통」 편에는 신앙의 영적 신비함과 감응에 관한 10조목, 「피은」 편에는 초연히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의 행적 10조목, 「효선」 편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불교적인 선행에 대한 미담 5조목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즉 불교의 수용, 사찰, 불탑, 승려와 기도, 영험 등을 주제로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79조목에서 다뤄지고 있어 전체 조목의 57.2%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2>.

<표 2> 『삼국유사』의 구조와 중심내용

순번	편목	조목	중심 내용
1	1. 왕력(王歷)		삼국·가락국·후고구려·후백제 등의 연표
2	2. 기이(紀異)	36 23	고조선~후삼국까지의 단편적인 역사 기술
3	3. 흥법(興法)	6	삼국의 불교 수용과 그 융성의 과정 이야기
4	4. 탑상(塔像)	37	석탑(石塔), 범종(梵鐘), 불상(佛像), 사찰(寺刹)의 성립기

	5. 의해(義解)	14	신라의 학승(學僧) 및 율사(律師)의 전기(傳記)
5	6. 신주(神呪)	3	신라의 밀교적 신이승(神異僧)들의 활동
	7. 감통(感通)	10	신앙의 신령함과 그 감응(靈異感應)의 예
	8. 피은(避隱)	10	행적을 감추어버린 고승(高僧)들과 재가자의 전기
	9. 효선(孝善)	5	부모에 대한 효행과 미담에 관한 불교적인 선행

## 2. 『삼국유사』의 의미

### 1) 역사적 관점

『삼국유사』는 신화와 역사적 사실이 동시에 수록된 역사학 연구의 자료이며 한국 고대신화와 설화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다뤄지지 않은 많은 사료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민의 종합대백과사전이라고 평가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텔링과 풍성한 문화콘텐츠의 보고로서도 주목받고 있다.<sup>1)</sup>

한편 『삼국유사』에는 사찰이나 불탑의 건립과 그 관련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승려와 기도, 영험 등 불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 또한 많이 다루고 있다.

『삼국유사』의 찬술자가 일연이라는 승려라는 점 때문에 불교적 측면만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으나 한국의 불교는 전래된 불교에다 고대 한국인의 사상을 지배했던 민속 신앙이 혼재된 습합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승려의 기록이라거나 불교 관련 내용이 많다는 이유로 이 역사서를 불교사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불교 뿐 아니라 우리의 신화적 요소로부터 이에 담긴 철학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고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이다.

일연이 살았던 13세기는 국난의 극복과 민족의 자존을 수립하는 시대

1) 고영섭,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박문사, 2015, p.48.

였다. 따라서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 사실을 수록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하였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일연은 『삼국유사』를 찬술하고 따로 서문을 쓰지 않았으며 「기이」(紀異)편의 서두에서 이 책의 간행 의도에 대해 밝히고 있다.

무릇 옛날 성인들이 바야흐로 예(禮)와 악(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仁)과 의(義)로 교화를 펼치고자 할 때면, 괴이한 일과 완력, 어지러운 일과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하지만 제왕이 일어날 때는, 제왕이 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예언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일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된 연후에야 큰 변화를 타고 군왕의 지위를 장악하여 제왕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황하(黃河)에서는 등에 팔괘의 그림이 그려진 용마(龍馬)가 나왔고 낙수(洛水)에서는 등에 글이 새겨진 신귀(神龜)가 나와서, 각각 복희씨와 우임금이라는 성인이 일어났다. 무지개가 신모(神母)를 둘러싸 복희씨(伏羲氏)를 낳았고 용이 여등(女登)이라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신농씨(神農氏)를 낳았으며, 황아가 궁상(窮桑)의 들에서 노닐 때에 자칭 백제(白帝)의 아들이라는 신동과 관계를 갖고 소호씨(小昊氏)를 낳았고 간적(簡狄)이 알을 삼키고 설(契)을 낳았으며, 강원(姜嫄)은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기(弃)를 낳았고 요(堯)의 어머니는 임신한 지 14달 만에 요를 낳았으며, 큰 연못에서 용과 교합하여 패공(沛公, 한나라 고조인 유방)을 낳았다. 이로부터 그 뒤의 일들을 어찌 이루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즉 삼국의 시조가 모두 다 신비스럽고 기이한 데에서 나온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하겠는가? 이것이 기이편을 모든 편의 첫머리로 삼는 까닭이며, 그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다.<sup>2)</sup>

위 서문에서 밝혔듯 일연은 삼국의 개국조들을 중국의 역대 왕조들의

2) 『삼국유사』, 『大正藏』 T49. 卷第一 紀異(p.0961c09), “敘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故河出圖 洛出書 而聖人作 以至虹繞神母而誕羲 龍感女登而注炎 皇娥遊窮桑之野 有神童自稱白帝子 交通而生小昊 簡狄吞卵而生契 姜嫄履跡而生棄 胎孕十四月而生堯 龍交大澤而生沛公 自此而降 豈可殫記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紀異之所以[仁-二+斬]諸篇也. 意在斯焉.”

개국조들과 대등하게 기술하면서 삼국의 역사가 중국의 역대 역사와 대등함을 일갈하여 한민족의 자주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즉, 『삼국유사』는 삼한과 해동 등의 개념으로 연장되는 ‘조선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13세기 후반의 자긍심 높은 지식인의 관점에서 찬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다뤄지는 인물의 계층이 매우 다양하고 개방적이라는 점 또한 한국 고대인의 인식과 문화 전반에 대해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2) 자연과 식물의 관점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자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와 같은 사서뿐 아니라 불교 경전에서도 보이는 자연에 대한 인식과 자연과의 교감이나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전이나 사서에 수록된 식물들은 비유와 상징적 묘사라는 기능을 통해 종교적 성화(聖化)를 극대화하기도 하고 교리를 대변하는 중심교의 자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교리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며<sup>3)</sup> 장엄과 의식의 묘사하는 유용한 도구로 수록되어 경전이나 사서의 논자가 설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4)</sup>

고대인들은 자연과 인간이 별개의 존재이거나 단순한 배경적 요소가 아니라 무언의 예언자 또는 선지자로 인식하였으며 『삼국유사』 속의 자연물 특히 초목 또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해 온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소나무나 대나무, 향나무 등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들의 신이한 반응과 승려들의 범력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나 자연물, 초목들이 인간 이상으로 위신력(威神力)

3) 불교의 경우 연꽃의 의미와 상징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4) 민태영, 「불교경전에 나타난 식물연구를 통한 교법이해 모형 연구」, 『전법학연구』, 2018, p.46.

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sup>5)</sup>

비록 한국사에 있어 고대로부터의 자연관에 담겨 있는 자연숭배, 민간 신앙적 요소와 불교적 요소가 습합(習合)되어 있어 양자의 분리는 어려우나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 면면이 고대인의 자연관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식물은 전 인류는 물론 한국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적 상징물이었다. 한국 역사에서의 식물은 수목 신앙의 대상으로, 신화 속 주인공들의 강림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식물들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시대에는 꽃을 포함한 식물들은 관상적인 측면보다는 농경이나 수렵민족으로서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선시하였을 뿐 아니라 신의(神意)를 담은 대상이기도 하였다.<sup>6)</sup> 그러므로 한국의 역사를 자연과 식물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와 문화, 철학적 정체성을 식물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sup>7)</sup>

한편 현재 『삼국유사』는 수록된 민간신앙, 불교, 한국사와 문화 예술, 인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화 관련 연구는 물론 가시적 성과물로서 내용과 인물을 모티브로 한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앞에서 정리하였듯 『삼국유사』에 다수 식물이 수록되어 있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물들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식물과 관련된 연구는 연꽃과 대나무, 소나무 등 일부 식물들만을 대상으로 한 소고 형태의 연작

5) 민태영, 「佛敎 經典에 나타난 植物 研究 - 大乘佛典의 植物觀을 중심으로 -」, 동국대 박사논문, 2017. p.270.

6) 이윤호,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한국의 고대 식물상-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숲과 문화』 10권 4호, 2001, p.3.

7) 민태영, 「『三國遺事』의 草木 認識 -佛成論을 中心으로」, 한국불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p.684.

8) 몇 가지 예를 들면, 경주의 신라 문화제와 울산문화재단의 처용문화제, 만파식적 보존연구회의 세계피리축제 등이 『삼국유사』에 수록된 이야기와 인물들을 주제로 한 축제이다.

물이 있을 뿐이다.9)

또한 『삼국유사』에 수록 식물들에 대해 전수 조사가 된 연구10)가 있으나 응용식물학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이며 식물을 인식하는 관점이 인문학적 관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식물에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구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Ⅲ.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

#### 1.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

『삼국유사』에는 나무를 지칭하는 목본 29종, 꽃과 풀등을 지칭하는 초본 27종 등 총 56종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다<표 3-1>.

<표 3-1> 『삼국유사』의 목본과 초본

구분	식물의 종 수(개)
목본(나무)	29
초본(초화류)	27
계	56

벼와 갯미(粳米)를 포함한 쌀이 최다 수록 식물이며 대나무와 소나무, 청수련·청련·홍련을 포함한 연꽃 종류와 삼 등도 다수 수록된 식물이었다<표 3-2>.11)

9) 이윤호,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한국의 고대 식물상-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숲과 문화』 10권 4호.

10) 신현철,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식물들의 분류학적 실체와 민족식물학」, 『순천향사연구』 1-2, 1995.

11)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들은 이영노의 「한국식물도감」을 활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자생식물, 재배식물, 귀화식물은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KPNI, The Korean Plants Names Index)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식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식물이었으나 불교 경전과 전법, 구법승과 관련된 일화를 다루거나 외국 승려의 일대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조목에서는 전단과 다라수, 사라수, 침향 등 외국의 식물<sup>12)</sup>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여러 편목 가운데 「탐상」 편과 「의해」 편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단(「의해」-[진표가 간자를 전하다] 조), 다라수(「의해」-[인도에 간 스님들] 조), 망고(「탐상」-[사불산·굴불산·만불산] 조), 사라수(「의해」-[사복이 말을 하지 않다] 조), 침복(「탐상」-[만어산의 부처 영상] 조 외), 침향(「탐상」-[사불산·굴불산·만불산] 조 외) 등과 용화수(「감통」-[경홍이 성현을 만나다] 조)의 식물이 그 예이다.

<표 3-2>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의 종 수

순번	종수	식물명
1	7	길상초1(吉祥草) <sup>13)</sup> , 쌀과 벼(稻, 米), 대(竹), 갈대(葭), 락(茅), 기장(黍), 참억새(苦草) <sup>14)</sup>
2	6	회화나무(槐樹), 만다라화(天花, 曼陀羅華), 칩(葛), 검정콩(黑豆), 대두(菽), 강낭콩(白飯豆)
3	4	배나무(梨木), 매화나무(梅), 복사나무(桃), 살구나무(杏)
4	4	염교(薤) <sup>15)</sup> , 층층갈고리등글레(황정, 黃精), 길상초(吉祥草) <sup>16)</sup> , 마늘(大蒜)
5	3	연(蓮), 청련(靑蓮), 청수련(靑蓮花)
6	2	버드나무(柳), 능수버들 또는 깃버들(楊花) <sup>17)</sup>
7	2	목련(木蓮), 침복화(蒼菴, 황화수)
8	2	삼(布), 뽕나무(桑田)
9	2	소나무(松, 松皮, 松花), 잣나무(栢樹, 栢)
10	2	밤나무(栗樹, 栗枝), 가시나무(荊棘, 荊)
11	1	대추나무(棗)
12	1	계수나무(桂樹)
13	1	쭈(蓬)
14	1	난초(蘭)
15	1	전단나무(梅檀)
16	1	마(薯蕷)
17	1	여뀌(蓼, 辣蓼)

12) 불교 경전에 수록된 식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지 못하는 식물

18	1	지초(芝草)
19	1	모란(牡丹)
20	1	호롱박(瓠)
21	1	겨자(芥子)
22	1	다라수(貝多羅葉, 貝莢)
23	1	망고(菴羅)
24	1	사라수(娑羅樹, 鶴樹)
25	1	박달나무(檀)
26	1	철쭉(躑躅花) <sup>18)</sup>
27	1	차나무(茶)
28	1	참깨(胡麻, 芝麻, 香麻)
29	1	향나무(香, 香木)
30	1	산수유(山茱萸)
31	1	용화수(龍華(樹))
32	1	침향(沈香)
	56종	

## 2. 차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

### 1)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식물학적 특성

수록된 식물 가운데 차<sup>19)</sup>의 기능 즉 ‘약리적 효능과 사색의 공간을 넓혀주어 몸과 마음을 비워 치유하고 예의를 갖추게 한다’는 점<sup>20)</sup>에 부합하는 식물은 모두 12종이다.

이 가운데 본래 차로써 마시는 차나무<sup>20)</sup>를 제외하면 총 11종의 식물을

13) 벼과의 식물이며 부처님이 성도 시에 깔고 앉았다는 풀로서 불교 뿐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제사 의식에 사용하는 식물이며 학명은 *Desmostachya bipinnata*이다.

14) 가(葛)는 갈대, 모(茅)는 락이, 서(黍)는 기장이다. 점초(苦草)는 참역새이다.

15) 해(薤)는 연교(염부추)이며 부추는 구(韭)이다.

16) 백합과의 식물이며 학명은 *Reineckia carnea* Kunth.이다.

17) 능수버들 또는 갯버들로 판단된다.

18) 철쭉화(躑躅花)는 철쭉이며 요양화(鬮羊花)라고도 한다.

19) 기존 차나무는 대용 차식물을 다루는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실제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 가운데 차로 마실 수 있는 식물은 기존의 차나무를 포함해 12종이 수록되어 있다.

차나무를 대신하는 대용 차로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sup>21)</sup>

참고로 기존의 차 식물인 차는 「기이」 편 [가락국기](駕洛國記) 조<sup>22)</sup>와 「기이」 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사](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조<sup>23)</sup>, 「감통」-[월명사도솔가](月明師兜率歌) 조<sup>24)</sup>에 수록되어 있었으며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단순히 생물학적 개체로서의 차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56종의 식물 가운데 차나무를 제외한 11종의 식물을 이후 ‘『삼국유사』의 대용 차 식물’로 명명하기로 한다. 정리된 식물들은 식약처에서 식용으로 규정한 식물들로서 일부 식물은 현재 식물의 여러 부위를 차로 음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평범한 ‘대용 차 식물’은 역사와 문화사상사적으로 높은 평가받고 있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이라는 역사성을 더하게 된다. 즉 ‘역사와 문화를 담은 차’의 영역으로까지 대용 차의 의미를 넓혀가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식물학적 특징은 <표 3-3> 과 같다.<sup>25)</sup>

20) 차나무과의 *Camellia sinensis*, 즉 Tea Plant를 일컫는다.

21) 연과 청련, 청수련은 혼용되어 수록하고 있으며 그 활용성도 유사해 하나의 종으로 정리하였다.

22) “設以餅飯茶菓庶羞等奠, 술과 식혜를 만들고 떡과 밥, 차와 과일 등 여러 가지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니...”

23)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소승은 매년 3월3일과 9월9일이면 차를 달여서 남산(南山) 삼화령(三花嶺)에 있는 미륵세존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를 드리고 돌아 오는 길입니다.”...왕이 말하였다.“과인에게도 차 한잔을 나누어 줄 수 있겠소?” 스님은 곧 차를 달여서 드렸다. 차의 맛이 특이하였고...”

24) “茶珠在南壁畫慈氏像前, 차와 염주는 남쪽 벽화 미륵상 옆에 있었다.”

25) 식물은 『삼국유사』의 편목 순으로 정렬되었다.

<표 3-3>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식물학적 특징

순번	식물명	학명	초본/목본	개화기
1	쑥	<i>Artemisia princeps var.orientalis</i>	초본	7-9월
2	대추나무	<i>Zizyphus jujubavar</i>	목본	5-6월
3	마	<i>Dioscorea japonica</i>	초본, 덩굴성	6-7월
4	목련	<i>Magnolia kobus</i>	목본	4-6월
5	왕죽, 왕대	<i>Phyllostachys bambusoides</i>	초본	4월
6	뽕나무	<i>Morus alba</i>	목본	6월
7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목본	5월
8a	연	<i>Nelumbo nucifera</i>	초본	7-8월
8b	칭련	<i>Nelumbo stellata</i>	초본	7-8월
8c	칭수련	<i>Nelumbo nouchali</i>	초본	7-8월
9	매화나무	<i>Prunus mume</i>	목본	4-5월
10	산수유	<i>Cornus officinalis</i>	목본	4월
11	쑈	<i>Pueraria montana var. lobata</i>	만경목	8월

2)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약리적 효능

『삼국유사』의 대용 차 식물들은 <표 3-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대부분 두뇌 활성화와 심신 안정 등 신체의 순환과 안정에 효능이 있어 기존의 차 식물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다.

<표 3-4>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약리적 효능

순번	식물명	이용부위	용도	식약처 식품원료 목록(식용여부) <sup>26)</sup>	약리 효과 <sup>27)</sup>
1	쑥	잎	식용, 약용	대부분 잎만 사용	청혈과 해독 효과, 혈압개선, 간 기능 개선, 노화 방지
2	대추나무	잎, 열매	식용, 약용	잎, 열매(씨앗제외)	심신 안정, 노화 방지, 항스트레스, 혈액순환, 건위 자양
3	마	뿌리, 뿌리줄기	식용, 약용	뿌리, 뿌리줄기 ※(산약), 주아(영여자)	정신적, 신체적 기능 강화. 강심작용, 위장 장애 개선
4	목련	꽃잎	식용, 약용	꽃잎	알러지성 비염, 감기 개선, 항산화, 항염증, 혈액순환 개선

5	왕죽, 왕대	죽순, 잎, 수액	식용, 약용	죽순(줄기 제외), 잎, 수액	청혈, 심장 기능 개선, 진통 효과, 피로 회복, 신경쇠약 완화
6	뽕나무	열매	식용, 약용	뿌리껍질※(상백피) 어린가지※(상지), 잎, 열매※(상십자)	두통 완화, 청혈, 혈액순환, 변비 개선, 기억력 강화
7	소나무	순, 잎, 줄기, 가지, 꽃가루	식용, 관상용	순, 줄기, 가지, 잎, 꽃가루	항산화, 항균효능, 항염, 항노화, 청혈, 뇌 기능 개선, 자양강장
8a	연	뿌리, 꽃, 잎	식용, 관상용	뿌리(연근), 잎※(하엽), 꽃(연꽃, 수술포함)	강심, 건 비위, 신경쇠약, 강장, 고혈압 개선, 숙취 해소, 항산화 효과
8b	청련	“	식용, 관상용		강심, 건 비위, 신경쇠약, 강장, 고혈압 개선, 숙취 해소, 항산화 효과
8c	청수련	“	식용, 관상용		강심, 건 비위, 신경쇠약, 강장, 고혈압 개선, 숙취 해소, 항산화 효과
9	매화 나무	열매, 꽃	식용	열매(씨앗 제외), 꽃	갈증과 숙취 해소, 감기와 구토 증세 완화, 두뇌 활성화, 소화제
10	산수유	열매	약용, 조경	열매※(산수유)	두통·이명 완화, 집중력 향상, 두뇌 활성화, 해열·강장, 강정, 수렴 효과
11	취	전초	식용, 약용	뿌리※(갈근), 잎/꽃봉우리(갈화)를 생약으로 이용 (제한적)	두통 완화, 건위

### 3) 『삼국유사』에 수록된 차 식물의 수록 위치

차 식물이 역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식물이 수록된 위치는 물론 의미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록된 식물이 단지 생물학적 개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

26) 식품안전나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7-102호, 2017.12.15.)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Material/foodMaterialDB.do?menu\\_no=2968&menu\\_grp=MENU\\_NEW04](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Material/foodMaterialDB.do?menu_no=2968&menu_grp=MENU_NEW04)

27) 강병화, 『한국생약자원 생태도감』, 서울: 지오북, 2008; 강병화, 『약과 먹거리로 쓰이는 우리나라 자원식물』, 한국학술정보, 2012. 등을 참고함.

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역사성을 갖춘 문화원형으로서의 차라는 의미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표 3-5>.

따라서 표에서는 식물의 수록 위치는 표시하되 다수 수록된 식물은 원문 전체를 표에 정리하는 대신 『삼국유사』에 수록된 해당 식물의 의미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표 3-5> 차 식물의 수록 위치와 의미

순번	식물명	수록 위치(편목/조목)	의미
1	쭈	1.기이-古朝鮮 2.기이-孝昭王代 竹旨郎	쭈은 고대 한국인에게 필수품이었으며 ‘모죽지랑가’ 속에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공허한 마음과 환경을 무거운 다북쭈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음.
2	대추 나무	2.기이-駕洛國記	허황옥이 왕비가 되기 전 꿈 속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먹었다는 전설의 대추(신회 속 신선이 먹었다는 대추)
3	마	2.기이-武王	서동, 서동요의 근원
4	목련	2.기이-駕洛國記	허황옥이 왕궁으로 들어올 때 탔던 배의 수려한 키와 돛대를 비유
5	왕죽, 왕대	1.기이-未鄒王 竹葉軍 2.기이-萬波息笛 2.기이-四十八景文大王 2.기이-後百濟甄萱 3.홍법-原宗興法 厭禱滅身 4.탑상-南白月二聖 努旻夫得怛怛朴朴 4.탑상-洛山 二大聖 觀音正趣調信 8.피은-勿稽子	신령의 힘이거나 통로, 위엄과 의협심의 발로 또는 평화와 단결심과 안식의 표상(만파식적), 대쪽 같은 이차돈의 지조와 복두장의 지조, 낙산사 두 영웅의과의 인연 등 신과 인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식물로 묘사되어 있음.
6	뽕나무	4.탑상-迦葉佛宴坐石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에 비유되는 식물 <sup>28)</sup>
7	소나무	1.기이-金庾信 4.탑상-南白月二聖努旻夫得怛怛朴朴 4.탑상-洛山 二大聖 觀音正趣調信	경흥에게 문수보살이 경계하고자 둔갑시켰던 식물, 관음보살이 홀연히 나타난 원효대사를 경계하였던 장소, 진표율사(眞表律師)가 입적한 장소에 계속 생겨났다는 나무 등 종교적 신성성과

		5.의해-元曉不羈 5.의해-關東楓岳鉢淵藪 石記 7.감통-廣德嚴莊 7.감통-憬興遇聖 8.피은-包山二聖	연관된 존재로 수록
8a	연	2.기이-惠恭王 4.탑상-四佛山 掘佛山 萬佛山 5.의해-二惠同塵 8.피은-惠現求靜	불교의 정신세계와 붓대를 향한 신자들의 신앙심을 투영하는 상징적인 의미, 유교에서의 연꽃은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의 상징, 도교에서는 신선계의 꽃, 변란이나 변고를 인간보다 먼저 인지하고 앞서 암시하는 선지자, 불법의 수호자, 수행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불교적 상징성과 결합하여 불성을 가진 자연의 신성함, 불법을 실천하는 승려를 의호하는 자로 묘사
8b	청련	4.탑상-臺山五萬眞身, 4.탑상-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 8.피은-緣會逃名 文殊帖	
8c	청수련	4.탑상-魚山佛影 4.탑상-臺山五萬眞身	
9	매화나무	3.홍법-阿道基羅	가장 뛰어난 자의 집에 최고의 꽃인 매화가 먼저 피었음을 찬함. <sup>29)</sup>
10	산수유	2.기이-四十八 景文大王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복두장이의 음성이 담긴 대나무 대신 심은 식물, 지조와 절개를 없애고 다시 심어도 여전히 소리는 남는다는 의미로 민초(서민)들을 상징 <sup>30)</sup>
11	취	4.탑상-臺山 五萬眞身 5.의해-慈藏定律 7.감통-郁面婢念 佛西昇	문수보살이 범사에게 일러준 정암사터(탑상)이거나 사자보좌(師子寶座)를 쓴 삼태기의 소재(의해) 절을 중건한 대사 회경의 꿈 속 신선이 주었다는 신발의 소재(감통).

28) 뽕나무 재배에 관한 기록은 『산림경제』, 『목민심서』, 『임원경제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29) 강희안(姜希顔)은 『양화소록』(養花小錄)의 화목 9등품론에서 매화를 1품으로 분류하였다. 만물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려줌으로써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으며 사랑을 상징하는 꽃 중에서 으뜸으로 시나 그림의 소재로도 많이 등장한다. 꽃말은 ‘고격·기품’이다. 특히 여기서 법은 불법 즉 부처님의 법을 의미하는데 매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30) 이윤호,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 『숲과 문화』 13권 2호, 2001, p.42.

## IV. 차 식물 다양성의 의의

『삼국유사』 등 사서에 수록된 식물들을 순수식물학 또는 응용식물학 적 측면에서 탐구하면 단순한 자연과학 분야이다.<sup>31)</sup>

차로 음용할 수 있는 식물을 기호 식품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성에 기반을 둔 개체로서 인식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문, 문화학의 영역을 아우르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차 생활이 마음 다스림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약리적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대용 차 식물을 문화원형의 관점에서 다양화함으로써 다음의 몇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1. 문화 원형과 콘텐츠로서의 인식 확대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유형 및 무형으로 만들어지는 선의의 결과물로 일반적으로 지적인 것이며 ‘총체적 삶의 양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2002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문화부장관회의(INCP: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가 채택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에 의하면 “문화라는 것은 한 사회 혹은 한 사회단체를 특징짓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총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31) 민태영, 「불교경전 속 식물 연구 방법론」, 『한국불교학』 73집, 2015, p.523.

각주2) 제인용, “순수식물학에는, 세포의 구조·핵·염색체 등을 주요과제로 다루는 세포학, 식물 조직의 종류·구조·배열 등을 다루는 조직학 또는 해부학, 기관의 형태와 종류·변태 등을 다루는 기관학(器官學) 또는 형태학(形態學)이 있다. 그리고 종자·포자·배우자 등의 형성·발육·생활사 등을 다루는 발생학(發生學), 식물체 내의 물질대사·호흡·운동과 성장 등을 다루는 생리학(生理學), 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생태학(生態學), 식물의 종류를 식별하고 계통을 밝히는 분류학(分類學), 유전현상을 규명하는 유전학(遺傳學), 식물 진화를 다루는 진화학(進化學) 등이 있다.; 각주3) 응용식물학에는 경제식물학, 약용식물학 조경학, 원예학, 재배학 등을 들 수 있으며 응용식물학 분야의 관련 학문으로는 농학, 임학 수산학, 약학 등이 있다.”

이는 첫째, 창조적인 표현(예 : 구전 역사, 언어, 공연예술, 미술, 공예)과 둘째, 사회 관습(예 : 민간치료요법, 전통적 천연자원 관리, 의식 및 단체와 개인의 복지 증진과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방식) 그리고 유적지, 건물, 도심 내 역사유적지, 풍경, 예술, 개체와 같은 물체나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sup>32)</sup>”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원래 체험과 향유를 위해 존재하며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구,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총합체인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sup>33)</sup>

이러한 정의를 통해 문화원형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 문화의 모든 것’이며 ‘정치, 경제, 의식주, 인물,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원형은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원동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34)</sup>

문화원형 논의를 처음부터 주도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이었으며, 논의의 의도는 ‘우리 문화원형’을 발굴해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 21세기 문화경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적 효용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었다.<sup>35)</sup>

32) 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Fifth Annual Ministerial Meeting,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Instrument /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ape Town, South Africa, October 14-16, 2002.

“Chapter 1: Definitions, Objectives And Scope Article 1: Definitions (“Culture” is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creative expression (e.g., oral history, language, literature, performing arts, fine arts, and crafts), community practices (e.g., traditional healing methods, traditional natural resource management, celebrations, and patterns of social interaction that contribute to group and individual welfare and identity), and material or built forms such as sites, buildings, historic city centres, landscapes, art, and objects.”

33) 이재수, 「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47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 p.316.

34)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이란?>문화원형의 이해 <http://www.culturecontent.com/html/htmlPage.do?page=info/understand.html>

35)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문화원형의 요소는 변형되지 않고 활용의 잠재력을 간직한 문화자료이며 무엇을 만들기 위해 소재로 인식한 문화로서 문화콘텐츠의 소재가 되는데 이 문화원형은 현재의 시점에서 재창조될 때 그 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문화원형이라는 말 속에는 ‘1) 역사적 과정을 거쳐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본래 모습 2)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문화현상들의 공통분모로서의 전형성 3) 지역 또는 민족 범주에서 그 민족이나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정체성 4) 다른 민족이나 지역의 문화와 구별되는 고유성 5) 위의 요소들을 잘 간직한 전통문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를 요약해 보면 ‘전통문화 가운데 그 민족 또는 그 지역의 특징을 잘 담고 있어서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구별되며 아울러 여러 가지로 갈라진 현재형의 본디 모습에 해당하는 문화’가 문화원형이다.<sup>36)</sup>

한편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는 문화원형을 시대별, 교과서별, 멀티미디어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하고 있다. 주제별 문화원형은 ‘정치 경제·생업, 종교와 신앙, 인물, 문학, 의·식·주, 회화, 미술·공예, 음악, 군사·외교, 교통·통신·지리, 과학기술·의약, 천문·풍수, 의례·놀이·연회, 문화·기타’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문화·기타’에 ‘우리 꽃 이야기, 경성 유흥 공간, 무궁화 이야기, 전통 무술 태권, 전통 호랑이 이야기, 금강산, 백두산’이 있으며 ‘우리 꽃 이야기’ 문화원형에서는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 꽃, 문학에 나타나는 우리 꽃, 풍습에 나타나는 우리 꽃, 종교 의례에 나타나는 우리 꽃 등을 그 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그 범주 가운데 문화원형으로서 ‘역사에 나타나는 우리 꽃’에서는 다음과 같이 꽃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어 『삼국유사』라는 사서에 수록된 식물의 의미와 문화 원형적 가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

p.17.

36) 김교빈, 위의 글, pp.11-12.

꽃은 한국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역사기록에 남겨진 꽃에 관한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한다.

백제를 고대국가 단계로 발전시킨 고이왕(古爾王)은 금꽃으로 오라관(烏羅冠)을 장식했다. 금화식오라관(金花飾烏羅冠)은 금화(金花)로 장식한 검은 비단의 관(冠)이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관을 꾸민 오라관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백제왕의 관모에 붙이던 꽃 모양의 장식은 납작한 금판(金板)에 구멍을 뚫어 화염형(火焰形)의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서 한 쌍으로 되어 있다. 무녕왕(武寧王)의 왕비의 것도 그와 비슷한 금화 한 쌍이 있다. 백제의 관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은으로 만든 꽃으로 관을 꾸몄다.

이런 전통은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는 왕성을 지키는 친위군장들은 금화(金花)로 장식한 모자를 썼다. 이것은 중앙군의 위엄을 상징하였을 것이다.

『고려사(高麗史)』는 금화장식이 된 모자를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들도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를 받았다.<sup>37)</sup>

따라서 꽃과 나무를 포함하는 식물이 역사 속의 사실이나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부각되면서 고대 한국인들의 정서와 생활상의 면면을 조망할 수 있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들 또한 ‘역사에 나타나는 식물 문화원형’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식물 가운데 차로 음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차 식물의 역할을 대체해 현실적 수용이 가능한 식물이라면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가 현실성과 대중적 호응 내지 소구력이기 때문이다.

## 2. 융합학으로서의 가능성 모색

37)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원형 라이브러리> 주제별문화원형>문화.기타>우리꽃 이야기  
[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4&cp\\_code=cp1010&index\\_id=cp10100002&content\\_id=cp10100002001&search\\_left\\_menu=1](http://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14&cp_code=cp1010&index_id=cp10100002&content_id=cp10100002001&search_left_menu=1)

한편 역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학은 ‘사실’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학문영역으로서 순수 문헌 위주로만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생활과 교육에 익숙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문헌 위주의 학문을 점차 한계에 부딪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콘텐츠 혹은 인문콘텐츠의 역할은 인문학의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융합과 통섭의 학문으로 취업의 실용적 학문으로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학생들에게 교육되어 왔다.<sup>38)</sup>

따라서 문화원형 요소로서의 식물에 역사라는 부가 가치를 입힌다는 것은 향후 차 시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인문학 내지 역사학을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즉 역사서 속의 식물연구 특히 실용성에 기반을 둔 대용 차 식물연구는 인문학적 가치로도 전이가 가능하며 융합 인문학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 3. 차 인구 확대를 통한 차 산업 발전

차의 중심적 의미와 역할은 명상이 되었든 불교적 수행이 되었든 집중력을 높이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일일 것이다.

차의 효능은 일반적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하며, 자연과 교감하게 한다. 또 사람과 교류하게 하고 예의롭게 하기도 하며 맑은 정신과 가벼운 몸은 곧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기도 한다.”<sup>39)</sup>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차는 다양한 약리적 효과가 있어 웰빙과 힐링이 대세인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음료라 할 수 있다. 다만 오랫동안 친숙한 기존의 차는 그 성질이 차 몸의 열을 내리는데 공복에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식사 직후 진한 녹차를 마시면 녹차의 탄닌 성분이 섭취한 음식의 단백질, 철 등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 물론 제다의 과정에서 술에 더거나 찌서 찻잎의 찬 성미

38) 태지호, 「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의 모색을 위한 제언」, 인문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p.149.

39) 이진수, 『정석 차의 이해』, 꼬레알리즘, 2015, pp.126-129.

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발효 과정을 통해 반 발효차나 발효차로 마셔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차는 장복할 경우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도 있다.

식물학적 효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효과는 <표 3-4>에서 제시한 11종의 대용 차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향과 맛에서도 기존의 차 식물과 차별화되기도 하여 기호에 따라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대사회에서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는 물론 다가오는 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로서의 차,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고 맛까지 좋은 차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 문화인이나 차 산업 종사자들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다.

역사를 담은, 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식물이 기호 식품으로 연구되고 이야기들이 개발되면서 차 자체에 대해 대중적으로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어 차 인구의 저변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역사성을 담아 이야기를 함께 담은 차 식물들이라면 식물 하나하나를 단순히 약리적 효능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차로 만드는 식물 자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과 저변 확대가 함의하는 바는 곧 차 문화의 성장과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 V. 결 어

인간의 삶은 각자 설정한 목표와 현실적인 여건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대부분 양자 간의 괴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를 마시는 일일 것이다. 복잡한 현대인의 삶을 반영

하듯 최근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힐링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 심신의 안정과 소통의 매개체인 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차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다양화하고자 하는 대용 차 식물의 개발은 현대인의 다양한 취향에도 맞추면서 차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차 인구의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 야깃거리를 가진 차 식물로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현재 차 관련 연구는 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역사, 음용 방법, 효능, 차 문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차 고유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대용 차 식물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삼국유사』는 인문학의 고전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식의 틀을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는 사서로 평가되고 있으며 문화 원형적 요소가 다양해 문화콘텐츠의 보고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한국 인문학의 고전이자 문화콘텐츠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식물 가운데 차로 음용 가능한 여러 식물을 정리하고 명상과 힐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용 차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삼국유사』에는 56종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마음 다스림을 포함한 약리적 효능의 측면에서 기존의 차나무와 유사하거나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은 모두 11종이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차 식물을 민족의 역사성에 기반을 둔 문화원형적 개체로서 인식하고 연구와 개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실용적이면서도 실천적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응용인문학이며 전통적 인문학에 대한 실험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전통적 인문학적 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고 상호보완적인 상생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차 문화를 포함한 우리 문화의 총량을 확대하여 인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차 식물을 문화원형으로 혹은 역사문화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국 역사라는 날줄과 차 문화 산업이라는 씨줄을 엮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三國遺事』, 『大正藏』 T.49

## 2. 단행본

강병화, 『한국생약자원 생태도감』, 지오북, 2008.

\_\_\_\_\_, 『약과 먹거리로 쓰이는 우리나라 자원식물』, 한국학술정보, 2012.

고영섭,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 박문사, 2015.

이영노, 『한국식물도감』, 교학사, 2002.

이진수, 『정석 차의 이해』, 꼬레알리즘, 2015.

일 연, 『삼국유사』, 재단법인 민족추진위원회, 1973.

\_\_\_\_\_, 신태영 역, 『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012.

## 3. 논문

김교빈, 「문화원형의 개념과 활용」, 『인문콘텐츠』 6호, 인문콘텐츠학회, 2005.

민태영, 「佛敎 經典에 나타난 植物 研究 - 大乘佛典의 植物觀을 중심으로 -」, 동국대 박사논문, 2017.

\_\_\_\_\_, 「『三國遺事』의 草木 -佛成論을 中心으로」, 한국불교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_\_\_\_\_, 「불교경전 속 식물 연구 방법론」, 『한국불교학』 73집, 2015.

\_\_\_\_\_, 「불교경전에 나타난 식물연구를 통한 교법이해 모형 연구」, 『전법학연구』 13호, 2018.

- 이윤희,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한국의 고대 식물상-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숲과 문화』 10권 4호, 2001.
- 이재수, 「문화다양성시대, 불교문화콘텐츠의 역할」, 『불교학보』 47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7.
- 태지호, 「문화콘텐츠 연구 방법론의 모색을 위한 제언」, 인문콘텐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5.

#### 4. 기타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식약처 식품원료목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7.12.15.)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afefoodlife/foodMaterial>  
국립수목원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KPNI, The Korean Plants Names Index)<http://www.nature.go.kr/kpni/index.do>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 【 Abstract 】

## Research of Diversification to plant used as Tea

-Focusing on the Meaning as a Cultural archetype of Plants listed  
in 『*Samgukyusa*』 -

Min, Tae-Young

Drinking tea is one of the most useful ways for people to control their mind. Because through a series of processes, people may resolve some of their internal conflicts and by repeating this process, it may help people to strengthen their own mind. Recently, many alternative teas with pharmacological effects have been introduced, but it is not enough to expand the base of the tea-drinking population or lead a new tea culture. Thus, through the exploration of tea plants with historicity, I would like to suggest future alternatives not only simple drinking tea but also humanities or tea culture studies that are embodied in plants. In this study, for the first step, I explored some plants listed in the 『*Samgukyusa*』, which totally covers thoughts, culture, history and philosophy of Korean people that can replace the efficacy of *Camellia sinensis*. Through this step, I would like to prepare an opportunity to make tea plants as a contents of cultural archetype of the Korean people.

Key words : 『*Samgukyusa*』, Tea Plants of 『*Samgukyusa*』, Diversification of Tea Plants, Cultural archetype, Content of Tea Culture

논문투고일 : 2019. 08. 31

심사완료일 : 2019. 09. 22

게재확정일 : 2019. 09. 27